

수없이 죽어도 기업을 용서해주는 나라,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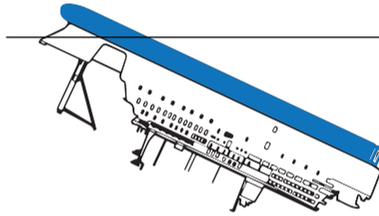
가습기살균제 참사

1131명 사망(계속 증가)

옥시 J 전 대표 무죄 선고(1심)

옥시 S 전 대표 징역 7년(1심)

제품 판매 승인 공무원 처벌 전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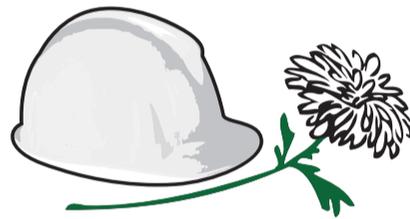


세월호 참사

304명 사망

청해진해운 K대표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청해진해운 법인 기름유출로 벌금 1천만원
해경 123정장(함장) K 경위 징역 3년
해양수산부, 해경 고위공무원 처벌 전혀 없음

언제까지 위험한 일터,
위험한 나라에서
이대로 살까요?



노동자

매일 5명씩 사망
매일 수천명 부상

2015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 사망해도
공장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영국, 벌금 15억원 부과
크레인운전기사 1명 사망

미국, 벌금 30억원 부과
미국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파견노동자 1명 사망 (2016년 12월)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나라는?

잘못한 기업을 강력히 처벌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이미 <기업살인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태도는
한국의 관대한 처벌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안전 조치가 안 된 결과로
노동자와 시민이
일터나 다중이용시설, 버스, 기차, 배, 비행기 등에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법인), 고위공무원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업과 정부관료가
안전 사고를 핵심 문제로 여겨야
뿌리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요구합시다!

산재 보험은 회사 승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흔히 회사가 산재 보험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나 사업주 날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산재 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원래 산재 보험은 <재해 당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회사나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건 ‘대신 해주는 일’일 뿐, ‘그들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공단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인지 여부만 따질 뿐입니다. 결국 본인이 일하다 다치거나 생긴 병이지만 잘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3년 이내



산재 보험을 신청 가능한 기한은 3년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짜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같은 사유로 최근 3년 이내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3년 이내 기간에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1인 이상 채용한 사업주는 <무조건>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혹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직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인지 여부만 따져서 산재 보험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은 ‘미납된 보험료’와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사장님, 나중에 후회 않으려면 미리 챙기세요)

제가 실수해서 다친 건데 신청 가능한가요?

산재 보험에선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니가 일하다 실수로 다친 거니까 산재 신청 못해”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신청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이를 보상하는 건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합시다!

전화 번호 꼭 저장해놓으시고
궁금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주세요.
금속노조는 제조업 노동자 누구나
개인 가입할 수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1800-9518

광주지역금속지회 062-453-4012
포스코사내하청지회 061-762-2956
전남서남지역지회 061-462-7177